“60여년 경험 바탕 ‘결핵 전문병원’ 위상 강화”

●박승규 국립목포병원장

작년 입원 심사 의뢰 전년比 208% 증가 등 성과 발표

최종 공공의료 안전망 구현·환자 중심 전인진료 강조

“지난 60여년의 경험과 결핵환자를 위한 간호간병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국립결핵전문병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합시다.”

박승규(사진) 국립목포병원장은 최근 열린 2025년 시무식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병원의 비전과 각오를 제시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의 결핵환자 전문 치료 국립의료기관이다.

지난해 전년도(2023년) 대비 입원 심사 의뢰 208% 증가, 입원 심의 가결률 119.9% 향상, 입원 환자 총 재원일수 2천489일 증가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고령층 결핵환자를 위한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2024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원장은 “앞으로도 민간·공공협력을 통해 결핵환자의 완치를 목표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비전으로 ‘전인진료’를 내세우며,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치료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직원들 간 배려와 소통을 바탕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박 원장은 병원의 미션인 ‘결핵의 최종적인 공공의료 안전망 구현’과 비전인 ‘소통에 존중을 더한 환자 중심의 맞춤형 국립목포병원’을 재차 강조했으며,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 원장은 “6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결핵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병원이 되겠다”며 “후회 없는 삶과 따뜻한 소통을 통해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파란꿈지역아동센터 후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최근 광주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부식품 세트(9박스)를 전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광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윤영숙 파란꿈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개발공사-진도군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와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8일 진도군청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 관련 부서장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은 60호 아파트로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각각 30호씩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신혼부부 최장 10년, 청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다.

김희수 군수는 “진도군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사장은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월 중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동아리 콘서트 ‘성황’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청소년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소년 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비빔밥’이 직접 기획·추진했으며, 20개 청소년 동아리가 다양한 재능나눔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공연티켓 수익금으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주거 마련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목포는 지금 1004℃’ 후원 약정식을 진행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수진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장애인복지관 떡국 배식 봉사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8일 광주장애인사랑복지회와 함께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봉사에는 최지현 위원장을 비롯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배식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자리까지 식사를 가져다 줬다.

최지현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분들을 직접 뵙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광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전국 최우수

전남도는 8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1위를 달성,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 등을 반영해 1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등 정량평가(80점)와 자체 징수 노력도 등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전남도는 광역도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곡성군이 최우수, 여수시·고흥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세외수입 총괄 부서와 부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가 지방세입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내실 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조선대,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RISE추진단’ 발족

조선대학교는 8일 “지난 6일 교육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준비를 위해 총장, 부총장, 교무위원 등 대학 내부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대학의 혁신 역량을 점검하고 ‘RISE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RISE 추진단장으로 전제열 부총장, 부단장으로 김용재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해 지역·산업의 혁신 성장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정주형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대학의 모든 보직자, 단과대학 학장들이 모여 광주시 9대 대표산업에 대한 조선대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향후 RISE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춘성 총장은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한다.

/김다이 기자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 국립대 전임교원 2명 배출

임태형

양은별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가 국립대학교 교수 2명을 배출했다.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는 8일 “전임연구원 2명이 2025학년도 1학기에 각각 전주교육대학교(임태형 박사)와 제주대학교(양은별 박사) 전임교수로 임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형 박사(지도교수 류지헌)는 전남대 국어교육과 출신으로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2021년부터 교육문제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양은별 박사(지도교수 류지헌)는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초등교사로 재직중이며, 2024년부터 박사후과정으로 채용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류지헌 소장은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가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실력있는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담양농협 부녀회장단 월산면 요양원에 쌀 기부

담양농업협동조합 부녀회장단은 “최근 월산면 소재 무지개요양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쌀 20㎏ 10포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담양읍, 용면, 월산면의 김현숙 총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장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은 “부녀회장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조합의 조직으로써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종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2025년도 정기총회=18일(토) 오전 10시30분 H메디컬센터 8층(광주 북구 서암대로181), 주차=H메디컬검진센터 주차장, 안건=2025년 사업계획 승인, 신임 집행부 승인, 기타 사항. 문의 김태균 사무처장(010-8578-1009).

결혼

▲김명철·이정열씨 아들 정석군, 강희철(기아오토랜드 광주)·장정이씨 딸 민지양=18일(토) 오후 4시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페디스홀(광주 서구 풍서좌로 269).

▲신승헌·임미영씨 아들 재광군, 이신우·서주희씨 딸 지선양=11일(토) 낮 12시20분 더컨벤션 송파문정점 12층 그랜드볼룸.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 651-8), (02)6418-5000, 010-2610-0005.

▲장영열·김매순씨 장남 승빈군, 김동진(담양군보건소장)·이미영씨 장녀 정민양=18일(토) 오후 1시30분 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062-364-1234, 010-4008-1264.

부음

▲윤영임씨 별세, 송외찬·외동·기완씨 모친상, 홍금단·박균희, 백주연씨 시모상, 지현·혜선씨 조모상=발인 10일(금) 낮 12시30분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302호(062-521-4444)